

건설동향브리핑

제383호 (2012. 10. 29)

■ 경제 동향

- 8월 건축허가 27.3% 감소, 건축착공 3.4% 증가

■ 정책 · 경영

- 한국 건설의 잠재력과 해외 건설
-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글로벌 발주 요건 충족해야

■ 정보 마당

- 아시아 국가들의 녹색 건설 동향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현명한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을 따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8월 건축허가 27.3% 감소, 건축착공 3.4% 증가

- 1~8월 누적 허가면적은 작년과 동일, 누적 착공면적은 8.7% 증가 -

■ 8월 건축허가면적,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 전환

-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한 1,002.8만㎡를 기록, 지난 5~7월의 증가세를 마감
- 주거용은 전년 동월 대비 37.4% 감소한 396.3만㎡를 기록함.
 -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 42.8% 감소한 254.9만㎡를 기록하였고, 아파트 외가 24.3% 감소함.
- 비주거용은 교육·사회용을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8.7% 감소한 606.5만㎡를 기록함.
 - 교육·사회용이 25.8% 증가한 반면, 상업용과 공업용이 각각 12.6% 감소함.

■ 1~8월 누적 건축허가면적, 전년 동기 대비 동일

- 1~8월 누적 건축허가면적은 8월의 부진으로 인해 작년과 동일한 8,679.5만㎡를 기록함.
 - 주거용이 3.3% 증가한 3,406.7만㎡를 기록함. 아파트가 2.4%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도 4.4% 증가함.
 - 비주거용은 공업용과 기타 허가면적의 부진으로 인해 1.9% 감소한 5,272.8만㎡를 기록

<건축허가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만㎡, 전년 동기비 %)

구분	전체	주거용			비주거용				
		아파트	아파트 외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8월	1,002.8	396.3	254.9	141.4	606.5	246.0	128.2	114.0	118.4
증감률	-27.3	-37.4	-42.8	-24.3	-18.7	-12.6	-12.6	25.8	-48.0
1~8월	8,679.5	3,406.7	1,951.8	1,454.9	5,272.8	2,255.9	1,097.9	700.2	1,218.8
증감률	0.0	3.3	2.4	4.4	-1.9	2.8	-3.2	3.5	-11.2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 8월 건축착공면적, 주거용 호조로 4개월 연속 증가세

- 건축착공면적은 비주거용이 부진하였으나, 주거용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850.5만㎡를 기록,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주거용은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한 367.4만㎡를 기록함.
 - 아파트 외가 16.8% 감소한 139.8만㎡로 부진하였으나, 아파트는 227.6만㎡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3.6% 증가함.
- 비주거용은 전년 동월비 2.6% 감소한 483.1만㎡를 기록, 한 달만에 다시 감소함.
 - 세부적으로 교육·사회용이 16.4% 증가하였으나,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8.2%, 0.8% 감소하였으며, 기타 착공면적 또한 6.5% 감소함.

■ 1~8월 착공면적 전년 동기비 8.7% 증가, 주거용 견조한 증가, 비주거용은 다소 주춤

- 1~8월 누적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6,733.3만㎡로, 8월 누적치로는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주거용이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2,678.9만㎡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비주거용은 공업용이 매우 크게 부진했지만, 상업용과 교육·사회용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054.4만㎡를 기록함.
- 결과적으로 최근 착공 물량은 증가한 반면, 신규 허가 물량은 다소 주춤한 양상임.

<건축착공면적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만㎡, 전년 동기비 %)

구분	전체	주거용			비주거용				
		아파트	아파트 외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8월	850.5	367.4	227.6	139.8	483.1	176.6	112.1	81.1	113.2
증감률	3.4	12.5	43.6	-16.8	-2.6	-8.2	-0.8	16.4	-6.5
1~8월	6,733.3	2,678.9	1,350.4	1,328.5	4,054.4	1,661.2	917.5	538.0	937.8
증감률	8.7	22.1	39.6	8.3	1.3	7.5	-10.5	11.5	-1.0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한국 건설의 잠재력과 해외 건설

- 압축 성장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검증된 실적이 큰 무기 -

■ 세계 건설시장 흐름의 대세

- 선진국 건설시장은 당분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유로존의 위기는 충격적인 요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 유럽의 자금이 당분간 유로존 밖으로 이동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는 부양과 긴축이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 시장 상황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나 법상으로는 재정 긴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어 선택이 쉽지 않아 보임.
-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 예측
 - 세계 건설시장은 위도상으로는 북(North)에서 남(South)으로, 부자 나라(Rich)에서 가난한 나라(Poor), 선진국(Advanced)에서 신흥국(Emerging)으로 이동 중에 있음.
 - 최근 건설업체들의 진출국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음.

■ 국내 건설산업과 시장의 당면 과제

- 내수 시장과 재정 여력
 - 유력한 대선 출마자 3인 모두 건설투자의 확대보다는 축소를 주장하고 있음.
 - 국가 재정 및 공공 재정은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는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임.
- 산업체들의 당면 과제
 - 내수 시장의 한계를 해외시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흐름에는 공감. 하지만, 해외 도급 시장에서 고임금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과 생산성의 혁신 기술이 부족
 - 해외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시장 지식과 경험자는 절대 부족. 금융과 보증 지원 등 규모와 능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음.

■ 한국 건설의 장점

-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대체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

되어 있음. 진출하려는 업체 수가 많은 것도 큰 장점임.

- 위기를 기회로, 위험을 감내하는 도전 정신, 계약된 사업은 반드시 완공한다는 사업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나라의 기업보다 강해 국내 건설산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장점임.
-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현재까지 해외시장에서 쌓은 실적은 발주기관들에게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상당한 매력이 있음.

■ 한국 건설의 무기

- 고속철도, 국제공항, 원자력발전소와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 선진국의 건설업체들이 경험하지 못한 완성된 상품의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아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무기임.
- 한국 업체들이 해외 공사에서 완공하지 못한 시설이나 발주자의 요구보다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진 사업이 없어 사업 완공 역량 역시 실증된 무기로 활용 가능
- 해외 건설시장에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기술자 기반이 견고한 것도 무기임.

■ 장점과 무기를 상품으로 연결시킬 전략과 역량 발휘가 필요

- 한국 건설의 장점과 무기에 대한 산업 차원의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유
 -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클럽 가입은 신흥국 모두에게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 주기에 충분. 경제 성장의 기반 시설을 한국 건설이 이룩했음은 선진국의 건설업체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큰 무기임.
 - 국가와 산업 차원의 홍보 프로그램은 공유하되 국내 업체들의 개별 실적은 별도로 개발하여 한 패키지로 기업 소개서로 만들 경우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것임.
- 글로벌 전문가 양성의 방향
 - 현재와 같은 기초 인력의 공급 확대보다 유경험자의 글로벌 역량을 단기간에 제고시키는 부문별 전문 지식과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함.
 - 시공 계획과 시공 설계, 시공성 검토와 공법 설계, 현장 물류 및 인력 관리 등 시공 소프트웨어 전문성 기초 및 심화 교육이 시급하게 강화되어야 함.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글로벌 발주 요건 충족해야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정량화 방안 구축 강조 -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 필요

-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또한, 사업의 종합사업관리의 기능과 통합이 가능한 표준화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요구됨.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는 2009년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대한 표준화 지침(ISO 31000)의 최종 드래프트(Draft)를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음.
 - ISO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프로세스와 종합사업관리 영역**의 체계적인 통합이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를 위해 기업 조직의 문화와 관행도 글로벌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다양한 발주자의 요구 및 사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ISO 31000 기반의 표준화된 모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리스크 관리 계획의 수립, 식별, 분석, 평가, 대응, 모니터링 및 리뷰 등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음.
 - 표준화 프로세스에서는 ‘계획+실행+평가’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관리 영역과의 입·출력 정보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요구

■ 리스크의 정량화 방안 보완, 경쟁력 강화의 시작

- 최근 대규모의 해외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정량화 방안은 발주자의 중요 요건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모델의 성능 보완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모델(안) 제안」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 ISO가 2012년 중 발표 예정인 ‘사업 경영에 대한 지침(ISO 21500)’의 10대 사업관리 영역에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고, 사업관리 영역들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실무자의 경험과 정성적 정보 중심의 평가는 관리 활동이 시급한 리스크 항목의 도출과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의사 결정 지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 공정과 연계된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여 관리 활동의 우선 순위 선정과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은 계획된 비용·일정 대비 사업의 전체적 리스크를 정량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
-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발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모델의 구축은 글로벌 수준의 역량 확보와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완벽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정량화하고 추적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사업관리의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건설업체들의 향후 과제

- 최근 해외 건설시장에서 단순 도급 사업보다 고도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사업관리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역량의 향상이 요구됨.
- ‘일회성’ 성격이 강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모델을 특정 사업 및 수주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됨.
- 리스크 관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절차+프로그램’의 시스템화와 함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결과물의 ‘요약’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리스크 감수라는 과거의 해외 사업 진출 전략에서 벗어나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리스크의 정량화 방안 모색은 발주 요건을 만족시키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준비 단계임.
- 리스크 관리의 역량이 글로벌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뿐만 아니라 훈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해외 건설시장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아시아 국가들의 녹색 건설 동향

- 온실 가스 감축, 녹색 건물 인증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

■ 제18회 Asia Construct Conference

- 제18회 Asia Construct Conference가 지난 10월 10~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건설을 실행하기 위하여(Toward Sustainable Construction Practice)”였으며, 7개의 국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건설 경제 현황(Co-country Report)과 녹색 건설 현황(Theme Report) 등을 발표
-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각국의 녹색 건설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계획
- 녹색 건설의 실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다수 발간함.
 - Green Pass는 말레이시아의 그린 빌딩 인증 시스템으로, 국내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유사한 것임.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GGBC(Green & Gracious Builder Scheme)을 통하여 녹색 건물의 인증을 ‘Star’, ‘Excellent’, ‘Merit’, ‘Certified’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인증함.
- GGBC에서는 에너지, 물, 공기 등 친환경 요소에 대한 비중 50%, 공공 안전, 접근성, 현장관리, 소음/진동 등 40%, 건설 사업의 혁신 요소 10%, 그리고 보너스 점수 5%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 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2011년에 ‘Agenda 21’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정부 및 발주

자, 연구 및 교육기관, 건설산업 주체 간의 전략과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안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녹색 건설 사업을 위한 매뉴얼, 표준 및 기준, 교육 및 훈련, 녹색 인프라 시설의 보급 및 평가, 리스크 및 가치사슬 연구 등을 진행함.
- 인도네시아의 대형 건설기업들은 건설사업에서 3R(Reduce, Reuse, Recycle)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홍콩

- 1998년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Building Energy Codes'를 실무 기준으로 제시함. 2004년에는 공공 입찰 평가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 친환경 관련 공공 건설 사업의 관련 기준을 마련함.
- 2009년의 경우, 개별적 접근이 아닌 공공 부문 녹색 빌딩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신규 및 리모델링 사업에 친환경 건물 인증과 개별 친환경 요소의 개념을 반영
- 그 결과 2% 정도의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공사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 공공 건설공사의 친환경성 측정, △ 소음 및 진동 측정, △ 방출 가스 측정, △ 지구 온난화 측정 등과 관련한 조직 및 기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 건설기업의 경우, 녹색 건설과 관련한 정부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조재의 가공 조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자재의 적극 구매 및 활용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녹색 활동이 이루어짐.
- 시공에 있어서도 녹색 건설 공법이 장려되고 있음. 예를 들어, 친환경 연료(바이오 디젤)를 사용하는 건설 장비의 활용, 에너지 절약 운전 유도, 친환경 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운전 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이 있음.

최석인(연구위원, sichoi@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0. 23	서울경제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경제TV 주최, 개국 4주년 특집 토론 대담 방송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평가 및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10. 24	포스코경영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경영연구소 주최, 건설 전문가 포럼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실장 참여 - 건설시장의 최근 동향 및 현안에 대한 토론
10. 25	한국감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주최, 부동산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주택 가격 지수에 관한 자문
	대한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건설협회 주최, 'YC포럼'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발표 주제 : 건설 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견 업체의 대응 전략
10. 26	대한토목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토목학회 주최, 2012년도 학술 발표 대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발표 주제 : 한국 건설의 잠재력과 해외 건설시장

■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24차 총회' 주제 발표 참여

- 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일본 해외건설협회가 10월 24~26일 일본 도쿄에서 공동 주최한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24차 총회에서 주제 발표에 참여
- 한국 및 일본 건설업체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조정실 왕세종 실장이 '한국 경제 및 건설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

■ '2013년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11. 7(수)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2013년 건설 경기 전망
(발제자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제2주제 : 2013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발제자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문의 및 참조 : 기획팀(Tel. 02-3441-0815)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현명한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을 따진다

아침 출근부터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낸 직장인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오는 점심시간은 하루 근무의 백미이며, 근방의 맛집 찾기도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법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비싸고 맛있는 집은 절반의 성공이고 싸고 맛까지 좋다면 대박이다. 비싸고 맛이 없다면 다시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가격과 맛과 취향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찾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공급자들의 적자생존 노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똑똑한 소비자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은 비단 음식점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주택의 경우를 보자. 오래 전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선임자들은 돈을 모아 집 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출받아 사놓고 보라고 조언했다. 틀린 말이 아니어서 당시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부동산을 통해 떼돈을 버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요즘 시장상황을 보면 오히려 부동산에서 손해를 보거나 무리한 투자로 빚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인구구조와 주택보급 정도를 보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이제 소유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살 때도 가격뿐 아니라 주택의 유형, 교통 및 주변 환경, 교육 여건, 환금성, 인생의 사이클 등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공급자는 짓기만 하면 팔린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몇 백억원, 심지어는 몇 조원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공공 발주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공급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민의 감시 눈초리를 의식해 지나치게 기계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주관적 판단 없이 확일적으로 공급자를 정하는 투명성만을 강조하는 면피성의 자존감 없는 자세가 문제다. 엄청난 지출이 수반되는 공공사업인만큼 확일적인 최저가낙찰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방적인 최저가낙찰제는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로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시공 불량,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들의 도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품질, 가격, 공기 등을 종합 고려해 공급자를 정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 객관성, 투명성이 중요시되기도 하고 품질, 주관적 평가가 우선되기도 한다. 상황에 맞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한 발주자가 예산절감은 물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까다로운 음식점 고르기는 잠깐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고, 신중한 부동산 구입은 가정의 10년 행복을 좌우하며, 현명한 공공사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모한다. <머니투데이, 2012. 9. 21>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